

4차 산업혁명시대의 보건의료 공공데이터 활용과 과제

송재동

개발상임이사·심사평가연구소장
건강보험심사평가원



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원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그리고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데이터3법¹⁾ 개정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.²⁾

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,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 마련,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,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효율화 등이며, 이번 개정으로 금융, 유통, 서비스, 공공분야, 보건의료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적 목적이나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 기회가 커지게 된다.

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추진사업 중 하나로 보건의료 D.N.A.(Data, Network, AI)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의 속도를 높일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.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보건의료 데이터 생태계 구축, 신약, 의료기기 등 4대 유망분야 전략적 육성,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확충,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마련 등이 있다.

표준화된 진료 및 영상정보 교류를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,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 R&D사업을 적극 지원하며, 세계적인 수준의 임상시험 경쟁력을 구축하는 등 법 개정

1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약칭: 정보통신망법)」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약칭: 신용정보법)」

2)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. 정책위키(한눈에 보는 정책) - '데이터 3법'

으로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면서 국민 건강과 산업경쟁력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다.

그러나 한편으로는, 민감정보인 의료정보의 활용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및 건강상태에 따른 차별, 가명정보 사용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우려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정보 활용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기술적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.

이번 제14권 3호에서는 '4차 산업혁명시대의 보건의료 공공데이터 활용과 과제'를 주제로 달라진 데이터 환경에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방안을 살펴 보고자 한다.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고, 개정안의 취지에 맞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으로 국민건강 향상과 산업 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. X